

섹스에 관련된 루머의 허실(2)

성생활은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를 원활케 하여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

항간에는 섹스에 관련된 루머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생활을 일찍 중단한 남자는 사망률이 높다.', '자위행위와 발기장애는
무관하다.', '정상적인 식사는 별도의 정력제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또 '정관수술을 하면 전립선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소문도
연구결과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 자위행위 많이 하면 발기부전이
된다

자위행위는 발기장애와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심인성 발기부전의 치료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다만 기구를 사용하거나 발기된 페니스를 딱딱한 마루바닥에 대고 체중을 얹어 좌우로 구르는 형태의 자위행위나 발기된 페니스를 한쪽 방향으로 꺾거나 구부리는 행위는 페니스 백막이나 발기조직에 손상을 초래하여 훗날 발기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헌이 있다. 또한 자위행위를 하면서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급한 자위행위 습관이 굳어지면 조루증을 일으킬 수 있다.

❑ 새벽발기는 방광에 오줌이 찼기
때문이다

방광자극으로 발기가 일어나는 것

은 아니다. 아침에 오줌을 눌 때 오줌이 새지 않도록 조이고 있던 요도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발기된 음경이 함께 이완되는 현상 때문에 생긴 낭설이다.

❑ 정상적 남성이 포르노 비디오를
보면 발기돼야 한다

객관적으로 야한 장면이라도 자신에게 성적 자극이 되지 않으면 발기되지 않는다. 정상인 중 포르노 비디오를 보고 완전 발기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37%에 불과하다.

❑ 정력제를 먹으면 발기가 잘 된
다

정력에 좋다는 음식의 대부분은 남성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과 정자, 정액의 원료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은 굳이 이들 음식을 따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 간혹 정력식품을 통해 발기력이 강해졌다고 하는 사람은 심리적인 위안에서 비롯된 가약효과일 뿐이다.

❑ 오줌줄기의 세기와 발기력은 관
계가 있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발기에 관여하는 신경은 배뇨기능에 관여하는 신경과 같은 척수에서 뻗어 나와 비슷한 경로를 거쳐 성기와 방광에 분포한다.

따라서 배뇨신경이 손상을 받거나 염증이 있으면 바로 인접한 발기신경도 장애를 받기 쉬워 서로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으로 요도가 좁아져 오줌줄기가 가늘어진 경우에는 발기기능과 관



鄭定萬
〈준남성클리닉 원장〉

계가 없다.

❑ 전립선염은 성병인가

성병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생기는 세균성 전립선염은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전립선염은 성행위와 무관한 질병이기 때문에 성병이 아니다.

❑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암으로 진행되는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전혀 관계가 없다. 성질도 다르고 생기는 위치도 다르며 아무리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도 전립선암으로 진전되지 않는다. 가끔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 후 절제된 비대 전립선조직에서 암세포가 관찰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질병이다.

❑ 전립선 비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증상도 심하다

전립선을 구성하는 샘물조직과 섬유근육조직 가운데 어느 성분이 더 커졌는지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다르다. 섬유근육조직이 커지면 샘물조직이 커질 때에 비해 증상이 더 심하다.

❑ 전립선 비대증은 수술하면 완치된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아도 약 20% 정도는 불안전 방광이 그대로 남아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때는 약물치료와 병행해야 한다

❑ 전립선을 제거하면 생식능력이 없어지고 성능도 상실한다

전립선을 제거해도 정자는 계속 만들어지며 성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액이 체외로 사출되지 않고 방광쪽으로 역류되어 방광에서 정자를 채취한 후 인공수정으로 수정시키는 일이 있다. 또 수술도중 발기신경에 손상을 주면 발기부전을 초래하기도 한다.

❑ 정관수술을 하면 전립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진다

한때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연구결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전립선암 환자와 섹스를 하면 암에 걸리는가

전립선암 환자의 정액에 암세포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질은 강산성이기 때문에 암세포를 응고시켜 죽여 버린다. 설령 죽지 않더라도 남녀의 조직반응이 달라 암이 생기지 않는다.

❑ 남자가 오줌을 너무 참는 것은 좋지 않다

소변을 너무 오랫동안 참게되면 단혀진 외요도 괄약근 때문에 전립선요도의 압력이 올라간다. 전립선요도의 압력이 높아지면 소변이 전립선관으로 역류하여 전립선에 화학적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 화학적 전립선염을 전립선 염증이라고 말한다. 또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 과음할 때는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방광과 요도를 수축시켜 소변이 전립선으로 역류되어 전립선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전립선염으로 비약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과음, 과로 자체 때문에 전립선염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를 전립선통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립선통을 스트레스 전립선염이라고도 부른다.

❑ 사정을 자주하면 건강에 좋지않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일정량의 정액이 낭비되어 나중엔 발기부전이 된다는데

한때 정액 한정설이 통용된 적이 있다. 정액 한정설은 남자가 태어날 때 이미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정액의 양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액 한정설은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나이를 먹게되면 내분비기능과 세포기능이 저하되어 정액의 양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액의 풀(Pool)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규칙적이고 건전한 섹스로 주기적인 사정을 이루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외신에 의하면 영국의 사우스웨일스에 사는 45~59세 남성 9백18명을 대상으로 1983년부터 10년간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장 많은 사정횟수를 보인 남성이 가장 적은 횟수를 보인 남자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직 종족보존 수단으로서의 사정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헌은 없지만 사정과 장수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조사였다. 그 외에도 듀크대학의 25년간 연구결과와 1981년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도 성생활을 일찍 중단한 남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다. 성생활이 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를 원활케하여 장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④7